

보존치료시 치수상태감별의 문제점(2)

지난 번의 예는 실제로 치수에 병변이 발생했으나 임상적으로는 상아질의 민감도가 나타났으며 동통도 없었기 때문에 치수의 생활력을 감별하는 데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경우이었고 이번에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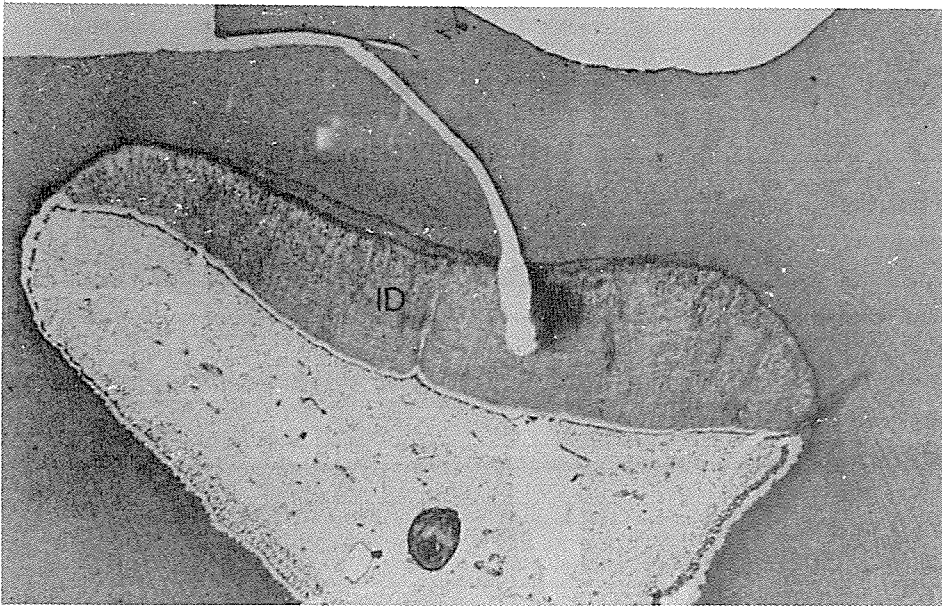
제 2 예 : 그림 2는 교합면상에 광범위하게 발생한 우식병소로부터 우식에 의해 연화된 상아질을 제거하고 발거한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한 표본이다. 우식에 의해 연화된 상아질은 hand instrument로 제거하였으며 이때 환자는 전혀 동통을 느끼지 않았

다. 이 표본에서는 상당한 두께의 이차상아질에 의해 치수가 완벽하게 보호된 것을 볼 수 있다.

이 경우에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.

1. 상아질의 민감도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치수가 손상을 받았거나 괴사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.
2. 이차상아질 형성에 의해 치수로 전달될 자극이 차단되어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.

[다음호에 계속됨]



사진설명 : ID : irregular secondary dentin. 사진에 나타난 defect는 artifact 임.

동우 치과 기공소

대표 金 貞 年

서울·종로구 창신 2 동 647-14

☎ 763-6433 764-7426